

<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

정윤아 (홍콩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2. 프란시스 베이컨: '명량한 절망감'을 표현한 위대한 화가

Francis Bacon (1909-1992)

영국 최고의 표현주의 화가로 칭송 받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불운한 세대인데가 유독 사랑하는 친구, 애인의 죽음을 여러 차례 목격하는 불행을 겪은 그의 삶을 반추하면 죽음의 공포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의 작품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화가 스스로가 명명한 '명량한 절망감'이 있다. 어둡지만 어둡지 않고,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삶을 말하기 위한 다른 방식일 뿐이다.

1920년대

베이컨 본인은 자신을 늦깎이 화가라고 말하곤 했으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일하는 가운데 항상 그림을 그리곤 했다. 1920년대 유화는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 그려진 수채화를 통해서 그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1930년대

1930년대 초반부터 그림에 집중하기 시작. 이 시기에는 특히, 피카소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과 초현실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피카소의 목탄 드로잉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십자가 책형 (Crucifixion, 1933)"으로 런던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전시가 계속 혹평을 받으며, 시련을 겪는다. 이어진 심각한 혹평은 베이컨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1937년부터 1943년 작품은 모두 베이컨 자신에 의해 소실되었다.

1940년대

오랜 침체기를 거쳐, 1944년에 발표한 "십자가 책형 발치의 인물들을 위한 세 개의 습작들(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로 런던 미술계를 강타한다. 비명을 지르는 듯 괴기스러운 회색 생명체와 밝은 오렌지 배경이 대비를 이루면서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후, 렘브란트의 도살장 이미지,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미지 등 옛날 거장들의 작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미술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 시키기 시작한다.

1950년대

이 시기에 베이컨은 1940년대에 시작한 주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드는 한편, 코끼리, 북극곰, 원숭이, 개,

부엉이 등 다양한 동물에서부터 주변 인물들, 풍경화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주제들에 관한 습작을 시작한다. 가장 많은 실험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일반적으로 평론가들 사이에서 베이컨의 가장 전성기라고 평가 받는 시기이다. 색채, 구도 등 모든 면에서 베이컨 특유의 “신경계에 직접 호소하는” (들뢰즈) 듯한 작품 스타일을 완성한 시기. 특히, 베이컨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삼면화도 이 시기에 왕성하게 제작되었다.

2013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1969년에 제작된 삼면화 중 하나가 1,5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되면서 가장 비싼 화가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절친한 동료 화가이자 영국을 대표하는 초상화가인 루시안 프로이트를 주제로 그린 것이라 더욱 화제가 된 바 있다.

1970년대

1971년, 파리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앞 둔 이틀 전,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조지 다이어가 약물과 알코올 과다복용으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베이컨은 죽음의 문제에 더욱 천착하면서 자화상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1960년대부터 단순화되기 시작한 배경이 더욱 간결해지고 보다 추상적인 내부 공간으로 진화한다.

1980년대

70대에 접어든 베이컨은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낳은 최고의 표현주의 화가’로 칭송 받으며,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갖는다. 이 시기에도 그의 실험은 지속되었으며,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삶의 질감 같은 감각적인 부분과 ‘실재의 강렬함’, ‘사실의 잔혹성’ 같은 그만의 주제에 접근하고자 끝없이 노력한다.

1990년대

“분명 우리는 고깃덩어리이고 잠재적인 시체입니다. 정육점에 가면 동물 대신 내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외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라며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사는 삶에 깃든 모든 공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는 인간의 삶에 깃든 보편적인 공포를 담담히 표현하며, 에로스 와 타나토스를 오가는 인간의 본성을 평생 동안 표현해낸 위대한 표현주의 화가로 평가받는다. 1992년 4월 28일, 여행 중이던 마드리드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